

계륜의 빛, 호남정신 새 전환점을 비추다

14:00~14:40	식전행사 창작 판소리(임진택), 국악(강은일과 해금플러스)
14:40~14:45	개회인사 이종범(한국학호남진흥원장)
	주제강연 남도의 정신문화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14:45~17:00	호남의 의병활동 홍영기(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새로운 해양시대, 남도의 길 강봉룡(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17:00	폐 회

목 차

■ 주제강연 1 1

남도의 정신문화

－ 호남사상과 창조리더십 －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 주제강연 2 13

호남의 의병활동

－ 한말 호남지역의 의병항쟁 －

홍 영 기 (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주제강연 3 31

새로운 해양시대, 남도의 길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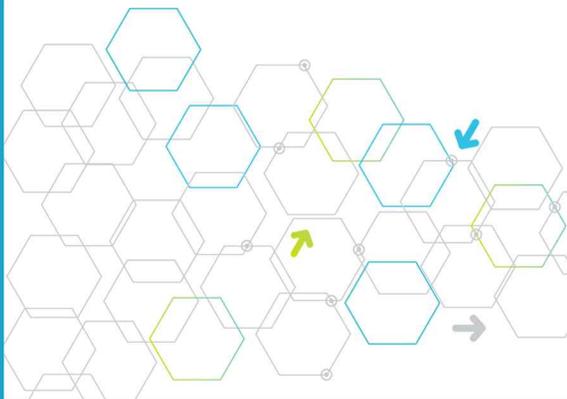
주제강연 1

남도의 정신문화

- 호남사상과 창조리더십 -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1. 서론

문과 예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치이념이 된 주자학은 양반들에 의해 독점된 학문이었다. 즉 주자학이라는 이념적 통치 이데올로기는 양반과 동의어적 의미로 조선사회를 지배하였고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지식을 독점하고 그 속에서 정치권력을 확대해 왔다.

세계사적으로 권력과 부의 독점은 예외 없는 사실이었으나 지식까지 독점한 예는 조선이 유일한 지배체제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조선사회에서 호남의 사상사도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호남만의 독특한 사상사와 사회학적 배경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려 한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논의는 필자가 기 출판한 『조선의 의인들』에 기초하여 이 책에서 거론한 호남의 성리학자들의 삶과 행적에다, 그분들의 사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사사를 논하고 그 결론으로서 창조적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조선사회는 가통·학통·대통이라고 하는 3통이 존재했다. 학문 전수의 계통과 질서를 담은 학통이 ‘학문권력’을, 왕통의 계승을 뜻하는 대통이 ‘정치권력’을 상징한다면, 가계의 계승을 뜻하는 가통은 ‘가문권력’의 상징이었다. 가문권력은 다시 혼인을 매개로 여러 문벌이 결합된 ‘혈연권력’으로 확장되어갔다. 조선의 양반들은 이를 세의(世誼) 또는 세교(世交)로 순화시켜 표현했지만, 혈연권력은 조선조 양반의 정치사회적 존재 원리 또는 양태를 설명하는 핵심어의 하나임에 분명했다(지도 p9).

이는 한마디로 가문이라는 가치중심에서 권력과 통치가 배태되어 온 것이 조선의 독특한 사회구조였음을 뜻한다. 모든 것이 가문으로 귀결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꿈은 수단과 방법을 국익에 우선하는 일 또한 비밀비재하였고 이것이 당쟁이란 이름으로 학연과 혈연으로 무장하였고,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집안을 유지발전시켰고 벼슬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가문 즉 명가를 만들어갔다.

물론 이런 명가의 반열에 든다는 것은 벼슬은 말할 것 없고 나름의 가풍이라

는 전통과 청빈한 삶이라거나 효열, 그리고 도학이나 문학, 의리 절개 또한 필요한 덕목이었다.

여기에 호남의 사상사에서 의독특함이란 가문이나 문벌에 앞서 의리명분적·절의적 성격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에는 조선건국 후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호남으로 이주해온 가족의 후예들이 많았던 점도 작용하였다.

호남 사상을 언급함에 있어 의병운동의 후반기에 이르면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하여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다는 표현대로 전국 의병의 반이 호남인이었다거나, 동학에서 항일운동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향으로서의 호남사상이라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이 있다.

한말에 이르면 국가세수의 반을 호남이 담당하면서도 호당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일 정도로 관료들의 가렴주구가 극심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저항정신의 기본조건이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은 논외로 하고 이런 절의적 역사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몇몇 호남의 성리학자들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논구해 보려 한다.

2. 본 론

호남사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다른 어느 지역과는 다르게 절의의 강조, 의리적,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호남사상의 이러한 특징은 임진왜란 등 국란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전쟁터에서 순절하는 일로 인해 절의와 충절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였다. 따라서 먼저 호남사상의 특징을 애초에 뿌리내리게 했던 대표적 인물들을 열거하면, 첫째는 영암에 낙향하여 살았던 연촌 최덕지(崔德之:1384-1455)를 들 수 있다. 그는 세조의 폐악한 권력찬탈을 예견하고 서울을 하직하고 낙향하여 절의와 의리의 높은 호남정신을 뿌려준 대단한 학자관인이었다. 그 다음을 이었던 인물은 나주 출신으로 해남에서 주로 생활했던 금남 최부(崔溥:1455-1504)와 영광의 지지당 송흠(宋欽

(1459-1547)이었다. 최부는 연산군의 악정에 항거하다 사약을 받고 죽어간 의리의 학자였으며, 송흙은 뛰어난 청백리이자 세상에 이름 높던 효자로 호남정신의 큰 맥을 이어주던 분들이었다. 광주태생인 놀재 박상(朴祥:1474-1530)에 이르면 절의와 의리정신은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아 호남정신의 꽃을 피우게 된다. 박상의 생애도 의리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러한 의리의 구현은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과 그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강직한 기질에서 비롯되었다.

호남유학의 가장 큰 특징을 도학적 성격으로 볼 때 박상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의 의리사상은 호남유학뿐만 아니라 조선유학이 의리학적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선조 성리학·문학·절의정신이 발흥하게 된 것도 박상을 떠나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비타협은 그의 시에서도 강건한 기를 추구하고 비분과 강계의 특성을 갖게 하였지만 배척과 소외로 힘들게 점철된 그의 일생은 그의 시로 하여금 비애와 한의 특성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철학적 사색을 통한 자기단련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결국 박상의 의리사상은 성리학적 기반 위에 불의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비판이 어우러지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서 김인후는 조선 중종 5년, 1510년 음력 7월 19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에서 태어났다. 명종 15년 1560년 음력 정월 16일, 51세의 하서 김인후는 세상을 떠난다. 인종의 등극 이후 한 차례 서울에 온 뒤, 인종이 승하한 36세 이후 그는 영원히 서울을 떠나 고향인 장성과 그에 이웃한 고을인 담양·순창 등의 자연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강학과 교육에 일생을 바치며 먼 훗날 요순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학을 정립하고 도학자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었다. 퇴계가 찬양하고, 고봉 기대승이나 율곡이 숭앙했던 하서의 배향이 그토록 늦었던 것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그런 절차가 있었으니 다행이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패악한 정치시대에 세속의 권력에 합류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위해 자신을 지키며 높은 사상과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도학자다. 하서의 삶이야말로 자신을 자학한 삶이 아니라 도의를 몸소 지켜 나라와 인민을 보전할 철학적 기반을 닦으며 살았던 일생이었다.

조선 500년에 도학과 절의를 하서만큼 크게 양양시킨 사람은 많지 않다. 문장가들이야 많았지만 마음에서 얻어낸 철학과 사상을 실제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권력과 부를 미련 없이 뿌리치고도 예의 범규에 벗어나지 않게, 시와 술로 자연을 벗 삼아 살았던 삶을 몇 사람에게서나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조대왕은 문묘에 배향을 마치고 하서에게 영의정의 벼슬을 증직하고 문정으로 개시했다. “바름으로 남을 굴복시켰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김인후의 사상 형성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태어나서 18세까지로 부친과 김안국 등 여러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김약목 등과 교유하면서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제자·사책까지 섭렵하고 천문·지리·백가·중기 등에도 두루 통달했으나 아직 성리학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19세부터 36세까지로 서울에 올라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사마시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하며 기묘사화 피화자들의 신원을 주장하고 교화를 강조하는 등 자신의 이상을 펼치다가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시기이다.

셋째 시기는 37세에서 46세까지로 향촌에서 훈몽재 등 서재를 짓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으며 한편으로는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질을 얻고 시와 술로 방황하기도 했던 시기였다.

넷째 시기는 47세에서 죽을 때까지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활발한 학문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당시 비정통 주자성리학적 경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호남성리학, 나아가 조선성리학의 줄기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사 기정진은 철학의 이론을 몸으로 실천했던 탁월한 성리학자였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이자 학문의 주조이던 성리학은 이론의 관념성이 높았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 공리공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왕조 말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몇몇 높은 수준의 성리학자들 덕분에 성리학은 공리공담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망국 무렵에 나라사랑의 뜨거운 의병운동으로 승화되었다. 그

런 운동의 사상과 철학을 제공한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바로 노사 기정진과 화서 이항로였다.

노사 기정진은 유리론이라는 최고 수준의 주리론에 근거해 행위와 실천이 없는 관념적인 이론은 진리일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학자였다. 그는 자신이 밝혀내고 찾아낸 진리는 몸으로 실천해 보여야만 그 참뜻이 있다고 믿고, 82년 평생 가장 겸허하고 가장 순수한 학자로서의 자세와 처신을 잃지 않았다. 벼슬 살이를 멀리하고 오로지 진리탐구에만 일생을 바쳐, 높은 수준의 성리학 이론을 터득했다.

현상윤은 『조선 유학사』에서 몇 백 명에 이르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가운데 그래도 학자다운 학문을 이룩한 학자로 여섯 분을 꼽았다. 그런데 퇴계·율곡·화담을 이은 학자로 녹문 임성주와 노사 기정진·한주 이진상을 거명했다. 그러면서 서세동점의 위기를 맞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무렵 세 분의 진정한 성리학자인 노사와 화서·한주의 업적으로 성리학의 역할이 그런대로 마무리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화서는 경기도 출신이고, 노사는 전라도 출신이며 한주는 경상도 출신이었다. 화서는 노사보다 6년 연상이고 노사는 한주보다 20년 연상이지만, 그들은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던 무렵을 공유했다. 서로 정보교환이나 연락도 없었으면서도, 주리라는 이론을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고, 위정척사 논리에도 큰 차이 없이 망해가던 나라에 우국과 애국의 불꽃을 피우게 했던 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 바로 그 시대를 이끌던 진운에 세 학자들이 앞장선 셈이었다.

노사 기정진은 정조 22년 1798년 지금의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 일명 조동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해 6월 3일 해가 질 무렵이었다. 본디는 아버지 기재우는 장성군 하남에 거주했으나 노사는 그의 부모님이 임시로 살아가던 구수동에서 태어났다.

탄생지야 순창군이지만 노사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한 곳은 장성의 하남이기 때문에 선대부터 살아가던 장성을 고향으로 여길 수 있다. 어린 시절에도 고향인 장성의 하남을 찾은 적이 많았고, 친족들이 대부분 하남에 있었기에 왕래가 잦았다. 더구나 18세에 양친을 잃고 외로운 신세가 되자, 바로 고향인 하남으로 돌아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을 보냈으니 고향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남은 지금의 지명으로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인데, 그때는 아치실, 즉 아곡으로 불렸다. 아치실은 기씨 이전에는 박씨의 마을이었는데, 한창 잘나가던 시절에는 ‘아치실 기씨’라는 호칭이 나도록 땡땡거리며 살던 기씨의 명촌이었다. 지금이야 거의 폐허가 되어 노사의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다.

가난한 선비로 생계가 넉넉지 못한 노사는 아치실에서도 오래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그곳과 멀지 않은 맥동·매곡·탁곡·여의동 등지를 전전하면서 장년기를 보냈다. 그러던 중에도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사인 관불암·남암·백양사 등의 절에서 골똥히 독서하면서 학문연구에 여념이 없었다.

노사가 가장 오래 거주하면서 저술활동과 강학을 했던 곳은 하사리였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다. 56세 이후 20년이 넘도록 그곳에 정착해 높은 학문과 사상으로 무장한 사상을 담은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래서 77세 때인 노경에야 노령산 아래의 하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사라는 자호를 짓고 「노사설」을 지어 저간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문 3자라 일컫는 대곡 김석귀·일신재 정의림·노백헌 정재규를 비롯해 손자인 송사 기우만 등의 학문이 바로 하사리 노사의 문하에서 익어갔다.

당대의 의기남아 면암 최익현이 대원군을 탄핵하다 반대파에 밀려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해배하던 1875년 4월에 노사를 찾아뵈던 곳도 하사리다. 또 뒷날 유명한 지사 시인이 될 매천 황현이 15세의 어린 나이로 노사를 찾아와 학문을 물었던 곳도 바로 하사리였다. 1869년 어느 날이었다. 노사는 신동이던 어린 황현을 보고 경계의 시 세 편을 지어주었다.

보배로운 소년이 행전도 안치고 찾아오니
놀랍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구나.
쉽게 얻은 것은 잃기도 쉬우니
연일 위의 물방울 구슬 자세히 보라.

「황현에게 세 수를 주다」

천재적인 시인 매천의 모습을 보고 제주만 믿고 경술할까 걱정되어 경계의 시를 지어준 것이다. 그래서 매천도 그의 유명한 『매천야록』의 맨 끝 부분에 자

신의 일생을 간략히 기술하면서 “15세에 노사 선생을 찾아가 뵈었더니 기특한 소년이라고 칭찬해주었다”는 내용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 하사리는 지금 흔적이 없다.

이유야 알 수 없으나, 78세의 노인 노사는 그해 겨울 오늘의 ‘고산서원’이 있는 장성군 진원면 고산리로 이사 왔다.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학문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에게 도를 전한 뒤 세상을 떠났다. 노사는 1875년 겨울에 이사와 ‘담대헌’이라는 강학소를 짓고, 1879년 12월 29일 생을 마치던 날까지 4년이 넘도록 거기 거처하면서 학술서적을 저작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치실이나 하사리는 노사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지만, 이곳에는 ‘담대헌’ 건물이 덩실하게 솟아 있고, ‘고산서원’이 우람하게 서 있어서, 노사의 유적지라 할 만하다.

황현은 조선왕조 최후의 대표적 시인이자 문장가이며,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때를 맞아 선비로서의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독약을 마시고 자결한 탁월한 애국지사였다.

뛰어난 시인이던 매천은 역사가였다. 한말 최고의 역사책인 『매천야록』은 매천의 높은 사안과 통찰력 때문에 최근세사 연구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 역사책에는 황현 자신의 「약전」이 실려 있다.

대한은 망하고 전 진사 황현은 독약을 마시고 죽다. 황현의 자는 운경, 그의 선대는 장수인이다. 임진왜란 때 충청병마절도사로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무민공 진의 후손으로 호가 매천이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슬기가 있었으며 노사 기정진을 찾아뵈자 선생이 기특하게 여겨주었다. 어른이 되자 서울로 올라가 영재 이견창, 창강 김택영 등과 좋은 벗으로 사귀었다. 34세 때인 고종황제 무자년에 진사가 되었다. 담론을 잘하고 기절을 좋아했다. 그러나 세상이 잘 되어갈 수 없음을 알고는 고향집으로 돌아와 시와 글에 자기의 뜻을 맡겨 훌륭한 작품을 지어냈으며,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융희 4년 8월 3일 합병령을 군청에서 마을까지 반포하자 그날 밤에 아편을 마시고 다음날 목숨이 끊어졌다. 「유시」 4수를 남겼다.

이 처절한 기록이 『매천야록』의 맨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유시」 4수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매천은 세종 때의 명정승 황희의 후손이자 임진왜란 때의 이름난 장수 황진의 10대 후손이었다. 진주성 싸움에서 죽어 나라에 보답한 장수의 의혼이 매천의 피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망국의 소식을 듣자 비탄에 빠진 선비 황현은 참다운 선비가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처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선비정신의 본질을 보여준 매천의 자결이었다. 그의 짙막한 「유서」은 떨리는 손으로 쓰여졌다.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한지 500년인데,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통탄스럽지 않으리오.

나는 위로 하늘에서 받은 몇몇한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아래로 평소에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저버리지 않으려 눈을 감고 영영 잠들면 참으로 통쾌함을 느끼리라. 너희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지어다.

그의 「유서」은 비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해 선비의 일상적인 담론처럼 보인다.

3. 결 론

이상에서 호남의 사상과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몇 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들의 삶과 행적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 리더십이었다. 그들은 가문을 명문가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고, 가문의 전통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이런저런 조직 즉 문계나 종계 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목을 매는 일도 없었다.

호남의 성리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영남, 서울 경기, 호서 등에서 볼 수 있는 소위 학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명문가 중심의 전통이라기보다는 대의명분이라는 의리적·절의적·도학적 신념과 소신으로 때로는 가문의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의와 예에 집착한 호남사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오늘날 의향과 예향이라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런 전통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계승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삶과 행적

이 곧 리더십이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자기희생적 지도자였다.

오직 대의를 위한 충의와 절의를 어떻게 창조적 리더십으로 되살릴 것인가?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학풍을 진작하고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진리탐구만이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것을 우리 호남의 선인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었고 실천해 온 리더십의 본보기였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원고는 필자가 저술한 『조선의 의인들』 외 고영진의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이성무의 지은 『조선을 이끈 명문가 지도』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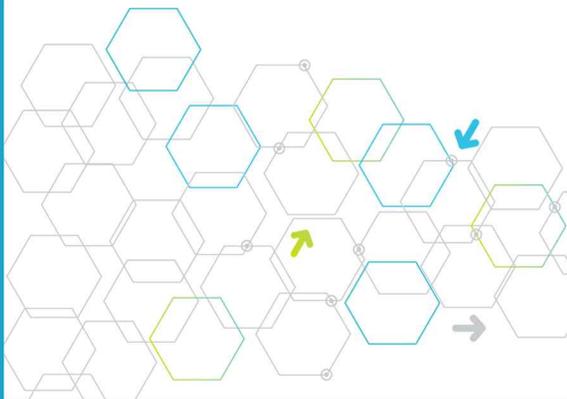
주제강연 2

호남의 의병활동

- 한말 호남지역의 의병항쟁 -

홍 영 기

(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독립운동가 뒤바보(본명 桂瑋禹)는, “의병이라 하면 그 명사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병들이 오로지 의(義)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며 싸웠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포한 일제의 군경과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의병의 숭고한 뜻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의병은 1895년경부터 191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약 20여 년간 투쟁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5년 무렵에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전국의 크고 작은 산과 너른 들판은 일본 군경과 맞서 싸우는 의병의 함성과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제와 투쟁한 이들의 항쟁을 흔히 의병전쟁이라 부른다.

그러면 왜 정규 군대도 아닌 민간인들이 손에 죽창이나 화승총 등 보잘 것 없는 무기를 들고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야만 했을까.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근대화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 틈을 타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을 식민화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적 침탈을 자행하였다.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였으며,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등 조선의 주권을 유린하였다. 이어 일본은 친일정권을 내세워 단발령과 의관제도(衣冠制度)의 개정 등과 같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거듭 내놓았다. 1896년 2월에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대한 조선 왕실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제국주의 마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자주국가의 상징인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정치적 침탈을 세계에 알려 외교적으로 호소하려던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허울밖에 남지 않은 군대조차 해산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강토에서 두차례나 국제적인 전쟁,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토를 유린한 후 대규모의 군대를 아예 주둔시켰다. 또한 전국의 주요 항구와 도시의 변화가, 비옥한 농토와 어장, 산림 등 경제적으로 유망한 자원을 빼앗아갔다. 이처럼 일제의 국권침탈이 갈수록 강화되어 우리 민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자, 이에 맞서 지식인에서 농투성이까지 수많

은 국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의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반일투쟁을 전개한 의병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저 의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1907년부터 약 5년 동안 의병의 규모는 총 14만명 정도로 추산될 뿐이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희생된 의병의 숫자가 약 15,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당시 의병의 규모와 심각한 피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때와 마찬가지로 한말 의병은 전라도 사람들이 주도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호남에 대해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若無湖南 是無國家)”이라고 말했듯이, 일제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처해진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전라도 사람들이 다시 앞장섰다는 점이다.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가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은, “대체로 각 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사실을 얻을 수 없으니 후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박은식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아래의 [표 1]이 그것이다. [표 1]에 의하면 1908~9년 사이에 전라도의 의병투쟁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각도별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1908년 후반~1909년 전반)

도별	구분	교 전 횟 수 (%)		교 전 의 병 수 (%)	
		1908	1909	1908	1909
경 기 도		78(4.0)	165(9.5)	1,453(1.8)	3,453(8.9)
충 청 남 도		217(11.0)	138(7.9)	7,666(9.3)	1,003(2.6)
충 청 북 도		113(5.7)	66(3.8)	6,815(8.2)	832(2.2)
전 라 남 도		274(13.9)	547(31.5)	10,544(12.7)	17,579(45.5)
전 라 북 도		219(11.1)	273(15.7)	9,960(12.0)	5,576(14.5)
경 상 남 도		153(7.7)	61(3.5)	3,328(4.0)	934(2.4)
경 상 북 도		158(7.9)	161(9.3)	5,702(6.9)	3,667(9.5)
강 원 도		273(13.8)	124(7.1)	18,599(22.5)	2,468(6.4)

도별	구분	교전횟수(%)		교전의병수(%)	
		1908	1909	1908	1909
황해도		232(11.7)	111(6.4)	7,998(9.7)	2,148(5.6)
평안남도		108(5.5)	61(3.5)	1,391(1.7)	540(1.4)
평안북도		41(2.1)	17(1.0)	2,590(3.1)	123(0.3)
함경남도		99(5.0)	14(0.8)	6,438(7.8)	270(0.7)
함경북도		11(0.6)	-	283(0.3)	-
합계		1,976	1,738	82,767	38,593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295~296쪽 인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8년 전라도의 의병들은 일본군경과 교전회수 및 교전의병수에서 전국대비 25%와 24.7%를, 1909년에는 47.2%와 60%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의 의병이 더욱 강력하게 투쟁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전라도 의병은 1908~9년 사이에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돋보이는 투쟁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9년 4월 현재 국가보훈처는 15,511명의 독립유공자를 서훈했는데, 그 중에서 한말의병은 2,638(17%)명이다. 전라도의 경우 2107명(13.6%, 한말의병 764명-2016년 기준)으로서, 경상도 3,420명(22.1%) 평안도 2,145명(13.8%)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된다.

2. 호남의병은 언제 왜 일어났나

전라도에서는 1895년 겨울부터 의병을 일으킬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이 을미사변, 즉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한데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격분한 전라도 사람들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나 약 석달만에 해산하였다. 당시 의병봉기의 중심지는 장성과 나주였다. 전라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앞장선 인물은 장성출신의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었다. 그는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98~1879)의 손자이자 제자였는데, 노

사의 문인(門人)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의 호소에 나주 등지의 양반 유생들이 적극 호응하였다.

근왕하자고 이미 으뜸으로 외쳤으니 선비 되고 누가 따르지 않으리오
.....(적당들이) 국모를 시해하고도 두려워함이 없는데다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니 통곡할 일입니다.

이병수, 「금성정의록」 병편, 『검산유고』

당시 나주에서는 의병을 일으키려고 여론을 모으던 중 장성에서 통문을 보내 오자 곧바로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주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 힘입어 이들은 장성향교를 본거지삼아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다시 한 번 호남 각지에 통문을 보내어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충의로써 자원한 자라면 누구나 받아들여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음력 2월 초순, 기우만 등은 수백명의 의병을 이끌고 나주로 출발하였다. 나주는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의 과상적인 공격을 막아낸 곳이었다. 따라서 나주의 군사적 역량이 의병의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나주에서는 장성의병이 다다르기 전에 개화파 관료인 나주관찰부 참서관 안중수 등을 처단하고서 의병조직의 정비에 한창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인근 지역에 알려짐으로써 의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를테면 함평 능주 무안 영광 등지의 양반 유생 및 향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달여 만에 수백명의 군세를 형성한 이들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천일(金千鎰) 의병장의 사우고지(祠宇故址)와 나주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금성당(錦城堂)에서 의병으로 출진하기 위한 제사를 올렸다. 이어 의병봉기를 알리는 상소를 다시 올리고, 전라도 각 군에 통문을 재차 띄웠다.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은 군읍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였다.

당시 전라도 의병을 결집시킨 장성과 나주의 의병 지도부는 각각 호남대의소, 나주의소를 결성하고서 근왕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준비에 분주하였다. 이어 장성의병이 이끄는 호남대의소는 광주로 이동하였는데, 광주가 호남의 중심지로서 각지의 의병들이 집결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나주의소는 나주에 주둔

하여 호남지역 방어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광주와 나주에서 각각 전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고종의 해산조치를 소지한 선유사(宣諭使)가 광주에 파견되어 왔다. 선유사로 내려온 신기선(申箕善)은 전라도지역의 의병을 주도하는 의병장 기우만에게 국왕의 명령을 내세워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의 의병봉기로 인해 국왕의 환궁이 더욱 늦어진다는 내용의 조칙을 내보이며 어서 빨리 의병을 해산하라고 강요하였다. 결국, 선유사 신기선의 지시에 따라 광산관(光山館)에 집결한 호남의병 수백명은 눈물을 머금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의병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양반 유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물론, 의병 해산에 전혀 반발이 없지는 아니었다. 훗날 다시 의병을 일으킨 기삼연은 끝까지 투쟁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호남대의소를 주도한 기우만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수배대상으로 지목되어 이리저리 떠돌며 피신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광주향교의 재임으로 의병대열을 이끌었던 박원영은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다. 또한 담양에서 의병을 도모한 전담양군수 민종렬도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유생 구상순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나주의소를 이끌었던 의병 지도부는 더 큰 희생을 치렀다. 예컨대, 해남군수에 부임한 정석진은 임지에서 나주로 압송되어 효수되었다. 또한 김창균·김석현 부자, 영광에서 합류한 정상섭 등도 배임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향리출신이어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나주의소의 향리출신 의병들이 개화파 관료의 처단에 앞장선 데다 신분도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1895년 말부터 1896년 초까지 활동한 호남의병은 복상을 앞두고 해산하였다. 이들은 반개화 반침략적 근왕의병으로 활동하다가 국왕의 해산조치가 내려지자 해산하는 한계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들은 다시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대일항쟁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을사조약 전후의 호남의병의 움직임

일제의 국권침탈이 갈수록 심화되자 의병봉기가 재연(再燃)되었다. 이를테면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마

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어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함으로써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권을 수호하려는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음은 물론이다.

호남의 뜻있는 인사들도 다시 의병봉기를 모색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삼연 기우만 고광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을사조약이전부터 의병을 도모하느라 밤잠을 설쳤지만,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주목할만 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896년 초를 전후하여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기삼연은 ‘꿈에도 왜놈을 토벌하는 시를 짓고, 취한 상태에서도 왜적을 토벌하는 격문을 지었는데 권(卷)이 되고 축(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반일의식을 드러내었다. 장성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기우만 역시 은인자중하던 중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일본과 매국오적(賣國五賊)의 단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상소운동과 외교적 방법의 한계를 절감한 후 1906년 초 곡성에서 의병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한편, 그들 외에도 의병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최익현 백낙구 양한규 양희일 등이 그들이다. 특히, 최익현은 호남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보낸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이라는 글은 호남의 유생들의 의리정신을 크게 고무시켰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을사오적’의 처단 등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족적 자각과 국가의 보존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익현 임병찬의 주도로 일어난 태인의병은 1천여 명의 군세를 자랑하며 한때 기세를 올렸으나 열흘도 못되어 꺾이고 말았다.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의 한계가 컸던 것이다. 한편, 태인의병의 핵심 지도부는 대마도에 끌려가 감금되었는데, 그중 의병장 최익현은 그곳에서 순절하고 말았다. 이후 그의 뜻을 이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저기에서 최익현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 건립이 추진되었고, 태인의병을 계승하기 위한 의병을 조직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백낙구 고광순 이항선 강재천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백낙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에 투신하였다. 최익현이 일으킨 태인의병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1906년 11월에 구례와 광양을 중심으로 직접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삼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일제에 맞서 싸우는 의병의 길에 투신하였노라고 밝혔다. 비록 눈이 멀어 보지 못할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반일투쟁 대열에 뛰어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말의 수많은 의병 가운데 유일한 맹인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전남 화순 출신의 양희일은 가산을 털어 수백명의 의병을 모아 쌍산의 소를 조직하여 능주 화순 동복 등지를 점령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이들은 광주를 공격하다가 의병장 양희일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체포됨으로써 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체포를 모면한 의병들이 다른 의병부대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호남의병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전라도, 의병항쟁의 중심지로 우뚝서다

드디어 전라도 전체가 의병의 발자국과 함성에 메아리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1907년 후반부터 전라남북도에도 의병의 불길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의병봉기가 줄을 이었는데, 특히 기삼연과 고광순의 활동이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전라도 최초의 의병부대인 장성의병에 참여한 이래 줄곧 의병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기삼연은 1907년 후반 호남창의회맹소라는 의병부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의리를 내세우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참여하고픈 의진이 바로 호남창의회맹소였다. 기삼연의 지조를 흠모하는 전라도의 청장년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그럴 정도로 그는 지난 10여 년간 일편단심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이후 호남의병을 주도한 내로라 하는 의병장들의 대부분은 호남창의회맹소를 거쳐 갔거나, 그의 뜻을 계승하여 의병을 일으킨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기삼연이 이끄는 호남창의회맹소는 반일투쟁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들이 일본인 군경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일진회와 자위단을 비롯한 친일파 제거, 납세거부투쟁, 수입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일본인들의 침탈

이 크게 둔화되었고, 세금도 잘 걷혀지지 않았다. 이렇듯 이들의 반일투쟁이 맹위를 떨치자, 일제는 광주수비대를 비롯한 일제군경을 총동원하여 1907년 1월부터 2월까지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의병 200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특히 의병장 기삼연 역시 순창에서 체포되어 광주로 끌려와 불법적으로 총살되고 말았다. 그는 죽음에 임박하여 “군대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이 몸이 먼저 죽으니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은 헛것이었던가”라는 시를 남기고 순국하였다.

한편, 전남 창평출신의 고광순 의병장 역시 호남의병의 불씨를 끈질기게 이어간 인물이었다. 그는 호남의 명가로 알려진 장흥고씨로서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호남을 지킨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었다. 그는 장성의병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집안일은 접어둔 채 오직 의병을 일으키려는 일념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서생의 가슴 속에도 갑병(甲兵)이 들어있는 법”이라 토로하였다.

고광순은 의병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1906년 6월 최익현이 태인에서 봉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며, 11월에는 백낙구 등과 함께 구례 중대사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도모하였다. 1907년 2월에는 남원의 양한규와 연합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음력 12월 중순에 의진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그의 사위인 기산도는 오적암살단과 의병으로 활약할 정도였으니 대대로 「충의전가(忠義傳家)」의 집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07년에 이들은 김동신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정읍 순창 등지를 공격하였으며, 동복과 구례분파소를 습격하는 등 주로 산간 내륙 지역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이처럼 60노구의 몸으로 그는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10여 년간 고군분투하였다. 그 결과 일제조차 고광순을 「호남의병의 선구자」 혹은 「고충신」이라 부르며 감탄할 정도로 호남의병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는 1907년 9월 의병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일제군경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보다는 「축예지계(蓄銳之計)」, 즉 군사력을 기른 후 대일항전을 벌이자는 준비론적인 장기항전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광순은 축예지계를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리산 피아골을 주목하였는데, 그곳의 입지적 조건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적이 드문 피아골에서 민간인 포수를 모집하여 의병으로 훈련시켜 일제의 군경과 맞설 만큼의

군사력을 축적할 생각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불원복(不遠復)” 세 글자를 쓴 군기(軍旗)를 세우고서 장기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 지리산 피아골을 장기항전의 근거지로 설정한 최초의 의병장, 고광순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가 아니라 강건한 빨치산 의병장으로 우뚝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리산이 의병의 소굴로 변모하자, 일제가 가만둘 리 없었다. 1907년 10월, 이들은 일본 군경의 기습을 받아 의병장 고광순을 비롯하여 약 30명의 의병이 장렬히 순절하고 말았다.

이후 크고 작은 의병부대가 전라도 각지에서 일어나 1908년 이후에 전라도는 의병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기삼연과 고광순 등의 의병정신을 본받아 계승하려는 새로운 의병장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배출되었다. 당시에 새로이 등장한 의병장으로는 김준·김을 형제, 양진여·상기 부자, 김동신,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이석용, 문태서, 임창모, 조경환, 황두일, 황준성, 김영엽, 박도경, 양운숙, 이기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는 지식이 풍부한 유생도 있으며, 중인에 속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머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혼재되어 있다. 김준과 김을·전해산·이석용·심남일 등은 유생, 김동신과 임창모·박도경은 중인, 안규홍은 빈농출신이었다.

이들 중에 김준·김을 형제와 양진여·상기 부자는 1907년 후반부터 1908년에 광주-나주 지역을 무대로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에 이어 김동신은 지리산, 이석용은 임실-진안, 문태서는 덕유산, 전해산은 고창-영광, 심남일은 강진-장흥, 안규홍은 순천-보성, 황두일 황준성은 해남-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뛰어난 활동을 벌인 의병장들이었다.

5. 호남의병은 어떻게 싸웠을까

호남의병은 먼저 무기의 개조와 신무기의 확보를 통하여 투쟁역량을 강화해갔다. 초기의 의병들은 대체로 화승총을 주무기로 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의병들이 직접 무기를 제작하거나 개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의 성능이 개선되어 연발총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병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신무기를 사용하거나, 해안을 통하여 신식총을 밀수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청나라 상인들이 화약을 땅콩포대에, 총기는 모피에 숨겨 수입품으로 위장시켜 한국의 의병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총기 가격은 상태에 따라 1정당 50~100원, 화약은 1근에 5~7원, 탄환은 1백발당 5~10원으로 매매되었다.

다음으로 의병의 전술이 정면공격에서 유격전술로 전환하였다. 초기 의병들은 주로 정면공격을 시도하여 거점을 확보한 후 북상하는 이른바 ‘북상지계(北上之計)’를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1907년 이후의 의병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유격전술로 일제 군경과 맞서 싸웠다. 이와 같은 호남의병의 활동에 대해 일제는, “우리와 충돌을 거듭함에 따라 적(의병:필자주)은 그 행동을 실험하여 근래에 이르러 교묘히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을 행하고 그 이합집산의 모양이 진보한 것 같다”라고 평한 사실이 주목된다. 즉, 1907년 이후 호남의병은 이른바 “분산과 집중” 혹은 “교란과 습격”과 같은 초보적인 유격전술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호남의병은 의진간의 연합전선을 강화해갔다. 이들은 “무릇 일은 합치면 강해지고 분열되면 약한 것이다 ...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한다 ... 이로부터 일이 있을 때는 합치고, 일이 없을 때는 나뉘었다”라고 있듯이, 의진간의 연합투쟁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라남도에서 주로 활동하던 11개의 의병부대가 전해산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을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호남의병은 연합투쟁 내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초기의 의병들이 분산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의병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초기의 의병들은 주민과의 관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평민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하면서 주민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머슴출신 의병장이 이끄는 안규홍 의병부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 「남도의병」에 “전라남도 통신을 거한즉 보성군에 사는 담사리라 하는 안모가 의병을 많이 모집하여 그 고을에 두류하나 백성에게는 침범하는 일이 추호도 없다”는 기사로써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의병들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가짜 의병과 부호의 토색, 관리의 가렴주구 등을 해결해주었으며, 주민

들은 의병들에게 숙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도는 의병의 장기항전의 주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호남의병은 이른바 ‘축예지계’ 즉, 장기항전을 위한 의병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지리산을 의병의 기지로 주목하였다. 이는, 중부이북의 의병들이 이른바 ‘북계책(北計策)’ 즉, 만주 및 연해주에 의병기지의 건설을 추진한 것과 비교된다. 지리산을 무대로 활동하던 의병들은, “지리산 가운데 인적이 없는 곳에 가옥을 구축하고 장벽이나 방책을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여 영구지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국내의병기지의 건설은 향토를 수호하려는 호남의병의 전략과 표리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전라도의 수많은 의병장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의병들은 납세거부투쟁, 가짜 의병의 침탈 방지, 악질 부호의 토색 근절, 미곡의 일본 유출 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의병활동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의병과 주민 사이의 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의병장 박용식은 주민과의 관계를 “의병과 주민은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붙어 있다. 재난은 서로 도와주며 서로 믿고 의지함이 마치 부모형제의 친밀함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는, 호남의병의 활동이 안민, 즉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의병의 안민활동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자신들의 활동기반도 견고해지리라는 기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주민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6. 전라도의 산과 들, 의병의 피로 물들다

내륙에서 최초로 타오른 호남의병의 불길은 지리산 등 심산유곡과 더불어 남해바다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이 휘감았다. 일제가 전남 도서지역을 「의병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점만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의병은 일제 군경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의 어장약탈에 분풀이라도

하듯 이주한 일본 어부와 어선, 등대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였다. 특히, 해남과 완도·진도 등 일본인의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의 활동이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도서지역 의병들은 어장을 약탈하고 섬에 눌러 앉으려 했던 일본인 이주자뿐만 아니라 주재순사까지 물으로 쫓아내었다.

이처럼 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전체가 의병의 불길에 휩싸이자, 일제는 호남의병들을 「신출귀몰하여 군대와 경찰의 두통거리」라거나, 「폭도의 소굴로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고 평하였다. 물론 일제의 침략이 없었다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땅이었을 것이다. 결국 일제는 호남의병을 근절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모색하였다. 아래의 글이 그러한 상황을 알려준다.

남한(전남: 필자주)에 실시하는 대토벌에는 (메이지) 40년이래 효력이 적었던 대토벌 방식을 고쳐 교반적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즉 토벌군을 세분하여 한정된 지역 안에서 수색을 실행하여 전후좌우로 왕복을 계속하고, 또한 기병적(奇兵的) 수단을 써서 폭도(의병: 필자주)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엿볼 틈을 주지 않은 동시에 해상에서도 수뢰정 경비선 및 소수 부대로써 연안 도서 등으로 도피하는 폭도에 대비하는 등 포위망을 농밀하게 하여 드디어는 그들이 진퇴양난에 걸려 자멸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 이 토벌 방법은 의외로 효과를 거두어 폭위를 떨치던 거괴 심남일 안규홍 강무경 임창모 이하 20여 명을 포박 또는 사살하고 기타 8백여 명을 포획 ... (1909년) 10월 말에는 폭도의 최대 소굴이었던 섬진강 이서의 지구인 전라남북도는 깨끗하게 청소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 792-3쪽

라고 있듯이, 호남의병을 소탕하기 위해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1909. 9-10월)이라는 피의 학살사건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호적조사까지 겸해 이루어지는 호남의병대학살사건은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군사작전이었다. 일제는 이미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을 제외하고도 2개 연대를 증파하였으며, 도서의병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해군 11정대와 증기선, 소형발동선 및 경비선 수십척을 동원

하여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펼쳤다.

「남한폭도대토벌작전」 기간에 자행된 일제의 만행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일병들이 길을 나누어 호남의병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그물치듯 사방을 포위하였으며, 촌락마다 살살이 수색하고 가가호호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죽였다. ... 이때 사망자 수는 무려 수천명”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로써 가장 강력하였던 호남의병은 일제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군사작전에 의해 처참한 희생을 치르며 종식되고 말았다.

일제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호남의병 5백여 명이 전사하였으며, 체포되거나 자수한 의병의 숫자는 무려 3천명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이른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의병 훈방자 6백여 명을 선발하여 하동-해남간 도로건설에 강제 투입하였다. 이들은 ‘특수인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60명당 순사 3명을 고정 배치하여 도망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총살하였다.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21만여 원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하였다. 일제는 그 도로를 <폭도도로>라 불렀는데, 현재의 국도 2호선 중에 해남-하동 구간이 해당된다.

일제는 군사작전을 종결한 후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南韓暴徒大討伐記念寫眞帖)』이라는 사진첩을 발간하였다. 제목에는 「남한」이라고 써어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의병의 진압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행한 책자이다. 사진첩에는 호남의병이 겪은 온갖 수난을 생생하게 담겨 있음은 물론 당시 호남의병을 진압한 사령관에서 초급장교에 이르는 면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의병전쟁 20여 년 동안 특정지역 의병의 진압을 기념하는 사진첩이 발간된 예는 전무후무한 사실이다. 이는, 일제가 호남의병의 진압에 얼마나 심혈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한편, 일제의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피해 용케 살아남은 의병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일제의 총칼을 모면한 의병들의 숫자는 잘 알 수 없으나, 일제는 의병의 주도인물 중에 살아남은 자를 기껏해야 4-5명 선으로 추정하였다. 이기손 이덕삼 노일당 이감룡 강승우 서응오 등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이기손은 간도로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가 되돌아와서 전북 금산의 대둔산 골짜기에 은거, 한많은 생애를 마쳤다.

이상과 같이 호남의병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끝에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독립군으로의 전환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특히,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가 그것이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임병찬을 비롯한 의병출신들이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독립의군부의 지도부는 전국의 군 단위까지 조직을 결성한 후에 국권회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탄로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그밖에도 이석용 의병장에 의해 결성된 임자밀맹단이나 박상진 등이 주도한 광복회에 가담하여 활동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

또한 개별적으로 독립군으로 전환한 의병들도 발견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광주 출신의 이기손 외에도 고흥의 이병채, 광양의 황병학, 장성의 기산도 등이 그들이다. 아울러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도모하거나 주도한 경우도 찾아진다. 심남일 의병부대에서 활동한 남평 출신의 김도숙, 전남 낙안에서는 의병에 참여했던 김종주와 유흥주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호남의병중 일부세력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만주와 중국 등지로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거나, 국내의 비밀결사운동을 주도 내지 적극 참여하였다. 일제의 「남한폭도대토벌작」에서 살아남은 호남의병은 대체로 1912~5년 사이에 광복운동으로 전환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말의 호남의병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말 호남의병의 정신적 근원은 멀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호남의병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호남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의 대부분이 왜란에 참여한 의병의 후손이란 점에서 입증된다.

둘째, 1908~9년 사이에 전개된 호남의병의 강력한 반일투쟁은 일제의 식민화 정책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일제는 1909년 후반 경 조선을 강점하려 하였으나, 호남의병의 투쟁이 장기화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아가 전라도 민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크게 고양시켰다. 결국 일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투입하여 호남의병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이후에야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셋째, 국내항일운동기지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하였다. 호남의병은 장기항전의 기반을 지리산과 같은 산악지대 등에 구축하였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민족해방 투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다만, 국내에 독립운동기지의 건설을 추진한 까닭에 호남의병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의 독립운동으로의 전환이 더디고 미약한 한계가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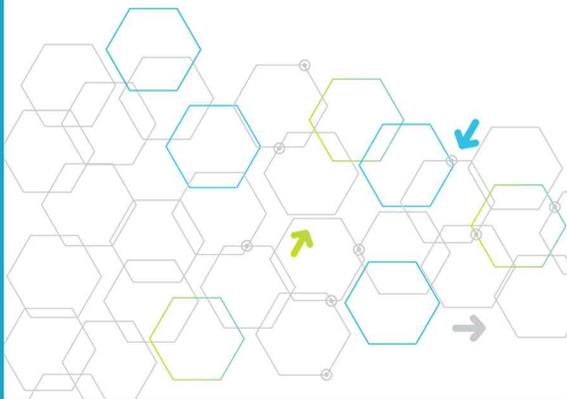
- 『기려수필』·『매천야록』·『한국독립운동지혈사』·『전남폭도사』·『폭도에 관한 편찬』
(『한국독립운동사』 1, 자료 8-19).
-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 동경, 1910 ; 『민족문화논총』 8,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1987.
- 뒤바보, 「의병전」, 『독립신문』, 상해, 1920.
- 『독립운동사자료집』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1.
-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 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 『독립운동사』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조동길, 『한말 의병전쟁』, 독립기념관, 1989.
-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1991.
- 무등역사연구회 편, 『광주 전남의 역사』, 태학사, 2001.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홍영기, 「일본군에 대한 전남 의병들의 처절한 저항 모습!」, 『대한제국기 지방 사람들』, 어진이, 2006.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2009.
- 홍영기,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 홍영기, 『독립의군부의 지도자 임병찬』, 역사공간, 2016.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역사공간, 2018.

주제강연 3

새로운 해양시대, 남도의 길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1. 섬을 통해 바다로 열려 있는 남도

남도는 전라남도를 정감있게 부르는 애칭이다. 육지의 지형으로 볼 때, 남도는 북으로 노령산맥으로 전라북도와 구분되고, 동으로 소백산맥으로 경상남도와의 경계 지워지지만, 서해안에서는 전라북도로 열려있고, 남해안에서는 경상남도로 열려있다. 한편 바다의 형세로 볼 때 남도는 세계로 활짝 열려있다. 남도는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서해를 통해서 전라북도 이북과, 남해를 통해서 경상남도 이동과 통하며, 서해를 따라서 더 서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남해를 따라 더 동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남도는 육지로는 닫혀있는 듯 보이지만 바다로는 열려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남도의 바다는 남도의 모든 것을 ‘바다’들여, 세계로 소통시키는 열린 공간이다. 그런데 남도의 강은 닫혀있는 육지를 열려있는 바다와 소통시킨다. 영산강은 남도의 유서깊은 도시 광주와 나주를 목포를 거쳐 바다로 이어주고, 섬진강은 경상남도와의 경계를 이루며 내륙의 깊은 곳에 위치한 구례 곡성 등을 광양을 통해서 바다로 이끌어낸다. 탐진강과 보성강은 강진, 장흥, 화순, 보성을 바다와 이어준다.

남도의 서남해 바다에는 섬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우리나라 섬의 65%가 집중되어 있다. 신안군과 진도군과 완도군에 밀집되어 있고, 북으로 영광군, 동으로 고흥과 여수에도 만만치 않은 섬들이 분포한다. 그리하여 남도의 서남해 바다는 우리나라의 핵심 다도해를 이룬다. 일찍이 1981년에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일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여수시는 1968년에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일대)에도 중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여수시에서 200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또한 서해에서 남해로 꺾어지는 해역에 위치한 완도에서는 2014년부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3년 터울로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는 특화된 해양산업박람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장 섬이 많은 신안군의 다도해는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신안과 증도의 갯벌은 2008년에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갯벌국립공원으로의 승격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도는 우리나라 갯벌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의 65%를 보유한 세계적인 다도해 해역 남도는 섬을 통해 바다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도해의 열린 공간에 무진장한 미래 자원이 숨어 있다. 이를 발굴하여 남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역사적으로 바다가 활용되었을 때 남도는 번영했고, 바다가 방치되었을 때, 남도는 쇠퇴했다. 바다의 역사는 남도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안내한다.

2. 바다로 본 한국사와 남도

1) 옛 해양시대

고대의 시대는 육로의 미발달로 인해 규모있는 문물교류는 강길과 바닷길(해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로는 비교적 먼 외방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문명발달사에 기여한 공이 컸다. 그런데 조선술과 항해술과 자연에 대한 인지력의 미발달로 인해 초기에는 큰 바다를 넘나들이가 어려웠다. 우리 역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국시대까지는 주로 연안해로에 의존했지만,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황해를 횡단하거나 사단하는 해로가 새롭게 개척되었고, 동시에 세계로 통하는 ‘해양실크로드’도 열리면서 활용 가능한 해로가 다각화되고 활동 가능한 바다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해로가 다각화되고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문물교류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통일신라 초기, 즉 8세기 단계에는 동아시아 삼국의 왕권이 모두 막강하여 국가가 문물교류를 주도하는 공무역이 성행했다. 그러나 8세기 후반 이후 삼국의 왕권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공무역도 함께 무너지고 개인이 주도하는 사무역이 성행하였다. 이때 장보고는 완도 청해진을 근거로 하여 동아시아 해양무역을

주름잡았다.

그 장보고는 841년에 암살당했지만 그가 서남해지역에 남긴 해양사적 유산은 이후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요지, 당대 최고상품인 청자생산단지 건설 등이 장보고의 유산이었다. 9세기 후반부터 장보고의 유산을 둘러싼 쟁패전이 벌어졌다. 압해도의 토착 해양세력인 능창, 신라 중앙군 출신의 견훤, 공예 휘하의 해군장군 왕건이 삼파전을 벌였으며, 왕건이 최후 승리자가 되었다. 서남해지역의 장보고의 유산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자연히 고려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했다. 개경의 외항인 벽란도의 예성항과 서남해 영산강변의 회진포, 상대포 등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상인과 사신들이 바다를 통해서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장삿배들이 줄을 지어 진기한 보배들을 들여왔다’고 자부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규보의 시에 의해 당대에 생생하게 묘사되었고, 이중환과 박지원 등의 글에 의해 조선시대까지 추억되었다.

13세기 들어 몽골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려 무인정권은 섬과 해로를 이용하는 ‘도서해양전략’으로 맞섰고, 막강한 세계제국 몽골과 대항하여 40여년을 버텼다. 마지막 저항은 삼별초의 몫이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간을 더 저항하다 결국 1273년에 몰락했다. 이와 함께 옛 해양시대도 저물어 갔다.

남도는 옛 해양시대와 함께 변영을 구가했고, 옛 해양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함께 쇠퇴했다.

2) 해금시대

도서해양세력은 무인정권과 삼별초가 몽골에 항거하는데 함께 했던 중요한 동지였다. 몽골과 개경의 고려정부는 이들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근거지인 주요 섬들을 비우는 공도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섬의 자위력은 급속 상실되었고, 이를 틈타 왜구가 창궐하였다. 고려의 막강 해양력은 추락했고, 도서연안지역은 황폐화되어 갔다.

고려 말 신진세력이 대두하면서 도서연안지역을 재건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기

도 했지만, 신생 조선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이미 그 직전 건국된 중국의 명 왕조는 저항하는 해양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해금과 공도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영향이 동아시아에 파급되고 있었다. 조선은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도서해양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명의 해금 및 공도의 조치를 추수했다.

조선의 섬 정책에 대해서는 ‘공도(空島)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도서개척정책’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개척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공도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은 제주도, 거제도, 진도, 남해도와 같은 4대 거대 섬에 대해서는 군현과 군진을 설치하여 지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여타의 섬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다.

그런데 양란 이후에 사정은 달라졌다. 바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수적(水賊)이 들끓었고, 그들은 섬을 근거로 노략을 일삼았다. 왜적(倭賊)들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여타의 섬들도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숙종 연간부터 군사기지인 수군진이 섬에 설치되고 증설되어갔다. 자연히 섬은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섬에서 토지 개척 내지 간척도 이루어졌고, 군현을 설치하자는 ‘설읍(設邑)’ 논의도 일어났다. 그리고 급기야 1896년에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남해도의 4대 섬 이외의 섬들을 3개 구역으로 묶어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 등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섬은 17세기 후반부터 금지의 족쇄가 풀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바다를 통한 대외문물교류는 전기 이후 변함없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해금(海禁)은 후기로 가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후기 집권세력이 된 사림세력은 화이론적 세계관과 극단적 자존의식에 경도되어 명 태조에 의해 시작한 해금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지켰다. 명칭교체 이후엔 소중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으로 무장하면서 바다 저쪽의 무리를 야만의 오랑캐로 여겨 통상을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18세기에 일부 실학자 사이에서 해상통상을 주장하는 개혁적 사상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국가의 정책에는 끝내 반영되지 못하고 좌절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강요된 개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조선후기에 섬은 열렸지만 바다는 여전히 금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섬은 고립의 공간으로 치부되었다. 섬은 사람이 살게 되었으나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하였다. 섬에서 살거나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천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은 지배층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해금(海禁)과 공도(空島)로 특징지워지는 조선의 해양정책으로 섬과 바다는 방치되고 피폐화되었다. 최고의 다도해 해역을 보유한 남도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도는 점점 중앙에서 소외되고 세계와도 고립되면서 잊혀진 공간이 되어갔다.

3) 새로운 해양시대

섬과 바다를 천시하는 대세적 풍조는 조선 5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연면히 내려왔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직도 우리의 의식에 미치고 있다. 섬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천시의 풍조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잔존해 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한다. 그러면 해양의 거점이며 지킴이인 섬도 중요한 공간이다. ‘섬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 필요성이 섬과 바다의 관점에서 새삼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조선시대의 섬과 바다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고려시대까지의 적극적 활용 경험을 승계하여, 21세기식 해양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해양환경을 갖춘 남도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기회가 왔음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성찰이 필요하다. 바다를 방기한 조선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성찰함은 물론, 해양활동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려시대의 역사를 계승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년은 그 고려가 처음 확정한 전라도 1000년의 해였을 뿐 아니라 고려건국 1100년이 되는 해였다. 전라도 1000년, 고려건국 1100년을 넘어 미래의 새 천년을 비출 남도의 정신으로 ‘해양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옛 해양의 시대 고려의 해양사와 남도

1) 전라도 1000년, 고려건국 1100년

① 전라도 1000년-1018 전라도 획정

전라도는 1000년 전 고려시대에 두 중심도시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처음으로 명명되었다. 고려에게 전주와 나주는 특별하고도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주는 고려 건국에 핵심적 지원세력이었고, 전주는 고려에 맞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던 후백제의 중심세력이었다. 그런 만큼 고려에게 나주와 전주는 애증이 교차하는 도시였다. 이러한 애증은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이 후대 왕에게 유서로 남긴 훈요십조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훈요십조의 제8조에 의하면 “차현 이남, 공주강 밖 사람들은 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등용이나 왕실 혼인을 하지 말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차현은 지금의 차령산맥, 공주강은 금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니, 그 ‘이남’과 ‘밖’이라 함은 오늘날의 전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제8조의 이 구절을 태조 왕건이 전라도를 차별하여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전라도 차별대우의 연원이 멀리 고려 초부터 시작되었다 하여, 오늘날의 전라도 차대 역시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는 악의적 지역감정으로까지 비약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8조는 전주 중심의 후백제 핵심세력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정치적 견제를 해야 할 것을 경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라도 차대라는 지역감정의 역사적 연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황당하고도 엉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부연해 보기로 하자.

먼저 태조 왕건이 나주를 특별히 배려했던 몇 가지 사례이다. 태조는 말년에 아들 왕무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고려의 2대 혜종이 되게 하였다. 혜종 왕무는 고려 건국에 크게 기여한 나주 출신 오다련이란 자의 딸(장화왕후)과 왕건 사이의 소생이다. 또한 태조는 나주를 ‘나주도대행대’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나주에 파견한 지방관을 ‘시증’이라 칭하게 하였다. 시증이란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함으로 통상적으로 중앙에 1인만이 있어야 했으나, 일시

적으로 중앙과 나주에 각각 1인씩, 2인의 시중을 두는 파격을 결행하였으니, 나주에 대한 태조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던가를 보여준다. 태조에게 전라도를 통제로 차대할 의도가 있었다면, 나주를 외가로 둔 왕무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마침내 후계 왕이 되게 하거나 나주를 특별 대우하는 일 등은 만무했을 터이다.

다음에 전라도를 획정한 현종 때 있었던 일이다. 현종은 즉위 원년(1010)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으로 피난한 적이 있었다. 삼례역에 당도하여 전주에 들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주는 (후)백제의 옛 땅일 뿐 아니라 성조(태조 왕건)께서도 이를 미워했으니 행차하지 말 것”이라 진언한 박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주를 들리지 않고 나주로 직행하였다. 반면 현종은 나주를 ‘부흥의 공을 이룬 곳’으로 극찬하였다. 현종 때까지 전주는 고려왕조의 경계의 대상이었던 반면, 나주는 특별한 우호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종은 곧 전주 세력에 대한 오랜 경계심을 풀고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는 1011년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주에 들러 7일 간 머물렀으니, 이는 나주로 내려갈 때 전주를 위협시하여 들리지 않았던 전례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현종의 전주 방문은 이제까지 적대시했던 전주세력을 무마하여 고려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간주해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종은 1018년 전주를 안남대도호부로 승격시켰고, 바로 그해에 강남도(江南道-지금의 전북)와 해양도(海陽道-지금의 광주전남)를 통합하여 전라도로 획정하기에 이르렀다. ‘1018 전라도’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훈요10조 제8조를 둘러싼 엉뚱한 오해, 혹은 악의적인 과잉 해석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② 고려건국 1100년-918년 고려건국

고려를 건국한 것은 918년이니, 올해로써 1100년을 맞는다. 왕건은 태봉의 ‘해군장군’으로서 후백제의 견훤과 대결하여 나주의 해양세력(서남해 및 영산강유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쿠데타(혁명?)를 일으켜 자신이 모시던 태봉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러니 오늘날 서남해 및 영산강유역의 해양세력은 고려 건국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왕건과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견훤은 순천과 광주세력을 섭렵하여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고려의 건국과 초기 발전의 과정은 왕건이 전라남도 서남부(서남해 및 영산강유역)의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결집하여, 전라도의 여타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던 견훤세력을 타도해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왕건의 고려 건국은 서남해 및 영산강유역의 해양세력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고, 왕건과 견훤의 초기 대결은 전라도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서남해와 영산강유역에는 전대(前代)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했던 장보고의 유산이 집적되어 있었다. 당시 이 일대는 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중추로 기능하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히트 무역상품인 청자 생산의 중심지였으니, 이것이 바로 장보고가 남긴 유산의 요체였다. 이러한 장보고의 유산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이후에 고려가 해양강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먼저 전라남도는 전라도의 일원으로서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전라도’를 처음으로 획정한 그 고려왕조를 건국하는데, 전라남도의 해양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은 ‘전라도 1000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고려 건국 1100년’의 해이기도 하니, 전라남도가 해양의 세기를 맞아 해양강국 고려를 계승하여 해양강성의 날개를 활짝 펼쳐갈 진귀한 쌍축의 운명적 전기를 맞은 것은 아닐까? 이제 고려 해양사에서 차지하는 남도의 위상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2) 장보고의 유산을 둘러싼 삼파전 : 능창, 견훤, 왕건

① 장보고의 유산

9세기 후반 신라가 쇠퇴하자 대망의 꿈을 품은 영웅들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들 중에는 장보고의 유산이 집적되어 있는 서남해와 영산강유역을 노리는 자가 많았다.

장보고는 중국 당나라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828년 급거 신라에 귀국하였다.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신라의 국내 정치에도 관여하다가, 841년 중앙 귀족의 사주를 받은 친구 염장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13년간 청해진 대사로 군림하면서 역대급 유산을 남겼다. 서남해지역을 ‘당-신라-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중추가 되게 하였고, 당시 최고의 무역상품으로 이름을 떨치던 청자의 대규모 생산 단지를 해남과 강진 일대에 조성했다.

차기의 대망을 꿈꾸던 영웅들에게 장보고의 유산은 반드시 선점해야 할 최고의 자산이었다. 9세기 말~10세기에 능창과 견훤과 왕건이 3파전을 이루며 장보고의 유산을 다투었다.

② 수달장군 능창, ‘포스트 장보고’를 꿈꾸다

장보고가 암살당한 지 반세기 후에 능창이란 자가 압해도에서 일어났다. 특히 수전에 능하여 ‘수달(水獺)’ 장군이라 불렸다. 그는 ‘포스트 장보고’를 꿈꾸며 장보고 사후에 흩어져 있던 서남해의 도서해양세력을 다시 규합하였다.

그의 위세는 대단했다. 천하의 왕건도 그를 두려워하여 바다에서 정면으로 맞붙으면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영을 잘 하는 자 10여인을 선발하여 칠흙 같은 야밤을 이용해 압해도에 투입하여 능창 생포 작전에 돌입했다. 요행히 그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다. 왕건은 자신이 왕으로 모시고 있던 태봉의 궁예에게 능창을 호송하였고, 궁예는 자신의 신묘한 계책이 통하였음을 자화자찬하면서 능창을 목베었다.

왕건과 궁예의 범상치 않은 행동과 언사로 미루어 볼 때, 능창은 비록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만, 당시 서남해의 해양세력을 아울러 위협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압해도의 송공산에는 산성이 남아 있어, 능창의 위세를 간직하고 있다.

③ 중앙군 출신 견훤, 후백제를 세우다

9세기 말에 능창을 중심으로 서남해의 도서해양세력이 다시 결집되어 가자, 신라 조정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장보고의 유산이 그들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신라의 진성여왕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889년에 ‘서남해방수군’이라는 특수부대를 결성하여 서남해 지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당시 중앙군 장교였던 견훤은 ‘비장(裨將)’으로 임명되어 ‘서남해방수군’을 이

끌고 신라 수도 경주를 출발했다. 당시 전국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견훤은 진군 과정에서 이들을 아울러 세력을 눈덩이처럼 키워갔다. 진주를 거쳐 순천에 이르자, 순천 및 광양의 해양세력인 박영규와 김충이 견훤에게 스스로 귀부하였다. 견훤은 순천에서 서남해로 직진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광주로 북상하였다. 892년에 광주에 이르자 광주 호족 지훤이 견훤에게 투항하였다. 견훤은 광주에서 1차 뿌리를 내리고 8년 간 나주 이남의 서남해지역 경략에 나섰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900년에 전주로 옮겨가 후백제 건국을 선언하였다.

④ 해군장군 왕건, 장보고의 유산을 차지하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무력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자, 서남해 해양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틈새를 왕건이 파고들었다. 왕건은 궁예에게 서남해의 공략을 건의하였고, 궁예는 왕건을 태봉의 ‘해군장군’으로 임명하여 이를 위임하였다.

왕건은 치밀한 준비에 나섰다. 먼저 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정주의 대표 해양세력인 유천궁을 포섭하였다. 그의 딸과 첫 번째 결혼을 하였으니, 이가 태조 왕건의 첫 번째 왕비인 신혜왕후이다. 다음에 나주의 대표 세력인 오다련에게 접근하였다. 오다련은 견훤의 집요한 공략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오던 차였다. 왕건은 그런 오다련을 설득하여 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오다련의 딸은 태조의 두 번째 왕비 장화왕후로서, 그의 소생 왕무는 고려의 2대왕 혜종이 된다. 더 나아가 왕건은 혜성군(지금의 당진시)의 핵심 세력인 복지겸과 박술희를 포섭하여 심복으로 삼았다.

왕건은 장인 유천궁의 도움으로 정주에서 함대를 결성하여, 903년 이후 3~4차례에 걸쳐 나주를 향해 출항하였다.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혜성군의 세력과 합류하여 최종 목적지 서남해지역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단숨에 차지하였으니, 이는 견훤이 10여 년 간 그렇게 집요하게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왕건의 평화적 교섭이 견훤의 무력적 공격을 이긴 결과라 할까!

왕건의 서남해 공략의 마무리는 912년에 이루어졌다. 이 해에 견훤은 후백제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왕건 견제에 나섰다. 왕건은 영산강의 목포와 덕진포 사

이에서 견훤의 수군과 맞서 결전을 벌였으니, 필자는 이를 ‘영산강대전’이라 부른다. ‘영산강대전’의 결과는 왕건의 대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위에서 언급했듯이 압해도의 능창을 생포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영산강대전’의 승리와 능창 생포작전의 성공으로 왕건은 장보고의 유산을 장악하였다. 『고려사』는 이를 ‘삼한의 태반을 차지한 일대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⑤ 왕건의 고려 건국과 전남

이렇듯 왕건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원래 왕건 가문이 예성강유역의 유력한 해양세력으로서 전대부터 서남해의 해양세력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또한 당시 서남해지역 고승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왕건의 부친 용건은 영암 출신의 풍수지리학자로 저명한 고승 도선국사와 교류하였고, 왕건은 월출산 남록에 위치한 강진 무위사의 주지로 있던 형미스님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남해 해양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형미스님은 왕건을 따라 태봉의 수도 철원에 갔다가, 917년에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태봉왕 궁예가 왕건을 견제하기 위해 왕건을 지지하던 그를 타살했을 거라는 설이 유력하다. 형미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었을까! 왕건은 그 이듬해인 918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 건국을 선언하고, 919년에는 형미의 다비식(장례식)을 정식으로 성대하게 거행해 주었다. 형미를 ‘선각대사’로 추증하고 그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의 이름을 ‘널리 빛이 비치는 신령스런 탑’이라는 의미의 ‘편광령탑’이라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후 고려는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해양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서남해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결과였다. 이렇듯 고려의 건국이 전남의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해양강국 고려와 남도

① 해양강국 고려와 해양도(海陽道)

왕건이 912년 ‘영산강대전’에서 견훤의 수군을 격파한 것에 대하여, 『고려사』

는 “삼한의 태반을 자지한 일대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고려 말의 정치가 조준은 1388년에 올린 상소문에서 “태조(왕건)가 수군을 이끌고 내려가 금성(지금의 나주)을 점령하고 여러 섬의 산물을 재력으로 삼아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다.”고 진단하였다.(『고려사절요』) 이러한 평가와 진단은 곧 서남해의 산물과 재력이 ‘국력의 태반’이요 ‘통일의 원동력’이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가진 가공할 위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태조 왕건은 전남 해양세력의 지원과 그 섬과 바다에 내포된 재력을 확보함으로써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어 성종은 재위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획정하면서 오늘날의 전남지역(광주광역시 포함)을 ‘해양도’라 명명하여 특별히 ‘해양(섬 포함) 강점의 도’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종은 재위 9년(1018년)에 ‘평야 강점(強點)의 도’인 강남도의 전주와 ‘해양 강점의 도’인 해양도의 나주를 아울러 ‘전라도’로 획정함으로써 이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1000년을 이어온 전라도의 역사는 이렇듯 평야(전주)와 해양(나주)의 융합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후 고려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하였고, 전남지역은 마지막까지 해양 강점의 특성을 견지하며 고려시대 내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② 고려시대의 전남의 국제무역항과 청자산업

실학자 이증환은 1751년에 저술한 인문지리지 『택리지』에서 영산강 하류 변에 위치한 영암의 상대포가 신라~고려시대에 중국으로 통하는 국제항이었음을 역설하였다. 상대포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무역선 혹은 사신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며, 그들이 취항한 해로는 흑산도와 홍도와 가거도를 거쳐 오늘날 양자강 하구의 Ningbo(寧波)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 등이 이 해로를 통해 중국으로 왕래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필자가 ‘흑산도해로’라 명명한 이 해로를 통해 내왕한 사신선과 무역선의 실제 사례가 있다. 먼저 『고려도경』은 1123년에 사신선이 Ningbo를 출항하여 서남해를 거쳐 개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Ningbo로 돌아간 해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200년 후인 1323년에 도자기를 가득 실은 무역선이 Ningbo를 떠

나 이 해로를 따라 한반도의 서남해를 거쳐 일본으로 가려다가新安군 증도 해역에 침몰한 사례도 있다. ‘신안선’이라 불리는 후자의 무역선은 1976년부터 10년간 발굴 작업을 거쳐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관에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영산강 변에 위치한 나주 회진포도 상대포 못지않게 국제항으로 명성을 떨쳤다. 금석문 자료에 의하면 회진포는 신라 말~고려 초에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발착항구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포와 회진포는 신라~고려시대 신문명 유입의 관문이었다. 신라 장보고시대에는 두 항구를 떠난 배들이 흑산도를 거쳐 북으로 산동반도의 적산포에 이르렀고, 고려시대에는 흑산도를 거쳐 남으로 Ningpo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흑산도는 한중 해상교통로의 분기점이자 합류점이었던 셈이다. 실제 근래에 흑산도 서북부의 읍동포구에서 당시의 절터(‘무심사선원’)와 제사터, 건물터 등의 흔적이 확인되면서 이곳에 한 때 잘 나가던 ‘국제해양도시’가 존속했을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하였다.

당시 최고의 고부가 무역상품은 단연 청자였다. 선종 승려들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애용한 음료인 차, 그리고 차를 마시는 고급 용기인 청자가 함께 들어왔다. 이른바 신문명 3중세트라 불리는 선종불교, 차, 청자는 신라 말기에 상대포와 회진포를 통해서 유입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처음 이를 지원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였다.

장보고는 청자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대규모의 ‘초기청자’ 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에 이어 신라를 세계 두 번째 청자 생산국이 되도록 하였다. 장보고세력의 청자 생산기술은 고려로 이어져 해남군 산이면 일대의 녹청자 생산단지로,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대규모 고급청자 생산단지로 분화·발전하였다.

비취색 은은한 고려청자는 국내 해양교통로인 조운로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되었고, 국제해로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다. 이로써 서남해 일대는 신라~고려시대에 최고의 국제 무역항과 최고의 무역상품 생산기지로써 해양강국 고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새로운 해양시대 및 섬의 시대와 남도

1) 새로운 해양시대, 섬의 시대

1996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섬(island)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만조일 때도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야 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섬이 바다에 대한 제반 권리(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 등)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하나만을 소개하자면, 섬을 중심으로 사방 200해리(약 370km)에 해당하는 바다 공간(약 450만km²)의 모든 경제적 이권을 섬 보유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권리이다. 섬에게 바다에 대한 엄청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의 범주를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제3항으로 추가하였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rock)은 섬(island)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바다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해양탐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바다에 엄청난 자원이 부존되어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 일컫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히 바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1996년에 5월 31일을 ‘바다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5월 31일에 대해서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한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1996년 5월 31일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열렸다. 이날 김영삼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던 중에, 해양수산부의 신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그해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바다 분쟁은 늘 섬 분쟁으로 표출되곤 한다. 섬에게 인정해준 바다에 대한 엄청난 권리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섬은 바다의 근거이자 지킴이인 셈이다. 만약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면 곧 ‘섬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2018년에 8월 8일을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삼기로 하고, 2019년 8월 8일 목포와 신안에서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국가의 섬 정책과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길 고대한다.

2)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남도 발전의 전기로 삼자

①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경과

2018년 2월 28일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안건이 포함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8월 8일dl ‘섬의 날’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은 2019년 8월 8일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세계 최초의 일로서, 우리나라 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도서문화연구원의 홍선기 교수가 2016년 1월에 신문 기고를 통해서 처음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였다. 목포MBC는 이를 받아 창립 48주년을 맞아 8월 16일 ‘섬의 날’ 제정을 주제로 기념 특집뉴스를 꾸렸고, 8월 23일에는 ‘섬의 날을 제정하자’는 주제로 특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이낙연 지사는 9월 5일 전국시도지사총회에서 ‘섬의 날’ 제정을 국가에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를 이어받아 ‘섬의 날’ 대국민공모(2017년 1월 25일~2월 24일)에 나섰고, 3월 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쳤다. 그리고 2018년 2월 8일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관련 법안을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확정되었다.

② 그간의 섬 정책에 대한 성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섬은 고립의 공간, 천시의 대상이었다. 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작용하였고, 국가의 정책적 관심도 미미했다. 조선시대에 해양을 금지하는 ‘해금정책’과 섬에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공도정책’이 장기지속 시

행되었고, 이것이 역사의 관성이 되어 오늘날까지 부지불식간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던 섬이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본격 부각된 것은 19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해 1988년부터 ‘제1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1988~1997)이 입안되어 시행되었고, 이후 제2차(1998~2007), 제3차(2008~2017)로 이어졌으며, 2018년부터 4차 10개년계획(2018~2027)이 시행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섬 개발정책은 도서개발촉진법과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30년 동안 장기간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10년 단위로 계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먼저 섬 지역의 여러 편의시설(연륙·연도교, 선착장 시설, 도로, 둘레길,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등)이 확충되었고, 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가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가꾸려는 정부 유관 부처 및 지자체의 의지가 새롭게 고양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먼저 섬 개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간 섬 개발정책은 섬을 낙후지와 오지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시혜적(施惠的)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주로 편의시설(하드웨어) 확충에 집중되는 바람에,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섬 개발정책을 장기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무인도화의 진행 속도는 늦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근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50년 후에 현 유인도의 6.7%가 무인도화 되리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부 섬들은 방치되어 황폐화되기도 하고, 수도권 주위 섬의 경우에는 난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 어찌 할 것인가? : ‘섬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무엇보다 섬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섬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의 범위를 ‘주민의 섬’에서 ‘국민의 섬’으로 확산·전환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섬 인구의 노령화와 무인도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섬의 문제를 섬 주민들의 문제로만 제약한다면 섬을 살리기는 무망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수시로

섬을 찾도록 하는 섬 관광의 관점은 물론, U턴이나 I턴을 통해 섬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섬에 대한 관심을 널리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섬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이를 위한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근래에 중앙 부서는 물론 섬을 보유한 지자체에서 ‘가고(찾고) 싶은 섬’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섬 살리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가고 싶은 섬’(관광) 이전에 ‘살아있는 섬’(자연생태 보존), ‘살기 좋은 섬’(경제 활성화), 살고 싶은 섬(문화와 복지)을 만드는 복합적인 섬 정책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섬의 날’이 확정된 2월 28일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이 발표한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장관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섬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지와 낙후지의 대명사로 인식해 오던 섬에 대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섬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명사적 인식의 전환과 철학적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④ 문명사적 인식의 전환과 철학적 방향의 설정 : ‘6차 산업’의 메카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문명은 몇 차례 혁명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이후에 전기에너지의 보급으로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 말기 이후에는 컴퓨터의 일상화로 3차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현하 21세기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산업혁명의 주기는 획기적으로 짧아지고, 그 속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산업혁명)은 생활의 획기적 편리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인간성의 위기와 인간 삶의 토대인 자연생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인간의 소외’를 논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인간의 무용지물화(無用之物化)’를 논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자연의 훼손과 황폐화’를 논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자연의 역습과 보복’을 걱정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에 ‘칼날의 양날’로 작동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철학적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 전자-생활의 편리-는 향유하되, 후자-위기와 붕괴의 상황-는 조율·견제하는 양면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섬 정책을 통해서 위기와 붕괴의 상황을 조율·견제하는 후자의 방향 설정에 집중하면서, 이를 새로운 트렌드의 산업 창출로 연결시켜 갈 것을 제안한다.

섬과 다도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산업은 바로 ‘청정 기반의 6차 산업’이다. 그렇다면 ‘청정 기반의 6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청정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과 이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이러한 1·2차의 생업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고 건강을 챙기는(health care)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복합하자는 개념이다.(1차+2차+3차=6차 산업)

우리나라에서 섬과 다도해는 ‘청정 기반 6차 산업’ 실현의 최적지이다. 섬은 오랫동안 천시의 대상으로 방치되어,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청정 자연생태의 환경을 비교적 잘 보존할 수 있었다. 섬과 다도해의 청정 환경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간의 무용지물화’와 ‘자연의 역습 및 보복’이라는 문명사적 위협을 견제·조율할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를 내포한다. 더 나아가 이는 새로운 트렌드의 산업(‘청정 기반의 6차 산업’)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원이 된다.

섬과 다도해를 ‘6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은 앞서 김부겸 장관이 선언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섬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유력한 길이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과 함께 국정지표의 한 축으로 제시한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유력한 실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기관 설립과 체제의 정립이 요청된다.

⑤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자

다음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실시를 제안한다. ‘살고 싶은 섬’이 되기 위해서는 ‘섬 산업’의 진흥과 함께 접근성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섬을 섬으로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적격이다.

그간 연안여객선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두 차례 있었다. 한번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 뒤인 2014년 9월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단계적 실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유야무야되었고, 여객선 안전대책은 더 강화된 통제와 규제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다 보니 섬 접근성은 오히려 현저히 위축되고 후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실종되었던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2017년 대선과정에서 부활되었다. 5월 8일 문재인 후보는 인천 유세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단계적 실시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7월 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시행하겠다는 안이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연안여객선 시스템의 개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공영제에서 준공영제로 후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준공영제는 현재의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사에 국가 보조금을 대폭 늘려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획기적 개선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안여객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해상의 간선도로’라는 발상이 요구된다. 육상의 간선도로의 경우 국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상의 간선도로’인 연안여객선도 국가가 SOC 개념으로 직접 관장하는 공영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저렴한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바다와 섬을 향유할 권리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면, 공영제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⑥ 국립세계섬박물관 건립과 섬 박람회를 구상하자

섬은 바다의 지킴이고,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립해양박물관이 동남권의 중심도시 부산에 세워졌다. 그렇다면 이제 섬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알리는 가칭 ‘국립세계섬박물관’을 다도해의 중심축인 서남권에 건립하는 것은 어떨까? 이 구상을 실현한 것은 동남권을 ‘해양의 수로’로, 서남권을 ‘섬의 수도’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실천해갈 상징적인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섬박물관(island museum)’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대표적인 섬 천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제정하였듯이 세계 최초로 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섬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근래에 여수시를 중심으로 ‘섬박람회’ 개최가 공론화되고 있다. 세계엑스포를 경험하며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한 여수시가 섬을 주제로 하여 또 한번의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다만 해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산업화로 이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 새로운 싱크탱크 설립과 체제의 정립 :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

현재 우리나라의 섬 정책 시행 부처는 크게 3원화 혹은 다원화 되어 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가, 유인도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분하여 관할한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각기 섬에 대한 간헐적인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섬 정책을 통일적으로 입안하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싱크탱크 내지 컨트롤타워가 현재로선 없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가칭) ‘섬발전진흥원’ 혹은 ‘섬정책연구원’을 세계적인 다도해역이 위치한 서남권(목포권)에 설립할 것을 처음 제안하였다. 이후 근래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섬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총리실은 제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받아 ‘섬 발전 추진대책’을 의결하면서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섬 정책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싱크탱크 내지 컨트롤타워로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이렇듯 의미있는 제안의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단 주목할 일이다.

⑧ 서남권에 ‘섬의 수도’, ‘섬의 메카’ 구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섬 연구 전담 기구,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필자는 서남권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이유와 명분을 덧붙인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65%가 밀집되어 있고, 서남권은 전라남도 섬의 64%(목포시·신안군 40%, 진도군 12%, 완도군 12%)가 집중된 세계적인 다도

해 해역을 품고 있다. 또한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 해역에 해당하고, 2009년에는 신안군 다도해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설악산과 제주도 이어)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서남권 다도해 해역은 역사적으로도 의미심장하다. 몇몇 대표적인 사례만을 들어보자. 9세기에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양무역을 석권하였고, 13세기에는 중국 영과향을 출발한 대규모 청자 무역선(‘신안선’)이 일본으로 향하던 중 신안군 증도 해역에 좌초되어 우리나라 수증고고학의 효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6세기 말 정유재란 때는 진도 해역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기적의 승리를 거둔 바 있었고, 이어 완도 고금도에서 이순신 장군과 중국의 진린 제독이 최초의 ‘조명연합함대’를 결성하여 최후 노랑해전을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서남권의 중심도시 목표는 일제강점기에 서남권 다도해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해륙중계도시(海陸中繼都市)’로 급성장하여, 1930년대 한때 전국의 6대 도시, 3대 항에 랭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어 서남권 다도해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국가의 기간 산업시설은 일본과 미국으로 통하는 동남권으로 집중되었고, 서남권은 쇠퇴를 면치 못하고 정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1992년 이후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으로 통하는 황해의 바닷길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국가적 차원에서 섬 정책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서남권 다도해 해역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동남권(부산권)은 ‘대한민국 해양의 수도’로, 서남권(목포권)은 ‘대한민국 섬의 수도’로 각기 자리매김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양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실제 매일신보는 1926년 11월 15일자 기사에서 목포를 ‘808개 섬의 수도’라 명명한 바 있다.

부산에 구축된 ‘해양 클러스터’와 짝하여 목포권에는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치하고, 이를 세계적인 ‘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서남권 중심대학 국립목포대학교에는 35년간 섬 연구에만 매진해 왔고, 근래 20년간은 국책 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큰 성과를 올린 도서문화연구

원이 있다. 그간 도서문화연구원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와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을 양축으로 운영하면서 국내외 도서해양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왔고, 국내 최고의 국문 섬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도서문화』와 세계 최고의 영문 섬 전문학술지(Scopus 등재지)인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후진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도서해양문화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칭)‘섬발전연구진흥원’을 이와 연계하여 서남권에 설립한다면 도서문화연구원이 축적해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서문화연구원의 인프라와 노하우는 어느 하나도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출범 과정에서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험고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有’에서 ‘더 큰 有’로 발전시키는 수월성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 글은 강연회 참가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필자가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한 기사들(아래)을 바탕으로 하여 본 강연의 주제에 맞추어 보완·재정리한 것이다.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전환하자(조선일보, 2014년 4월 30일)
- 세월호의 교훈, 섬과 바다 그리고 전남(전남중앙신문, 2014년 10월 14일)
- ‘다도해는 전남의 미래이다’ 연재(목포시민신문, 2014년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6일, 2015년 2월 20일, 1월 27일, 2월 3일, 2월 13일)
- 섬과 연안, 국토공간으로 인식해야(조선일보, 2016년 11월 2일)
- 전라도 섬, 단절과 한을 넘어 미래 있는 다리(광주일보, 2017년 1월 24일)
-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다시 주창한다(폴리뉴스, 2017년 8월 7일)
- 전라도 1000년과 고려건국 1100년(목포시민신문, 2018년 3월 28일)
- 왕건, 장보고의 유산을 계승하여 고려를 건국하다(목포시민신문, 2018년 4월 10일)
- 고려왕조와 전라남도의 친연성(목포시민신문, 2018년 4월 24일)
-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계기로 삼자(폴리뉴스, 2018년 7월 17일 자)
- 목포에서 섬 인문학의 원류를 찾다(『일요일 樂』 제5호, 2018년 11월 30일)